달·인·탐·방 '응급구조의 달인' 광주 동부소방서 학운119안전센터 방정수씨

"응급환자에 가장 중요한 건 시간, 최적의 처치 필요"

대한민국 최고기록공무원·'하트 세이버'에도 선정

방정수(33) 구급대원을 만나기 위해 동부소방서 학운119안전센터를 찾았다. 미리 약속을 정했지만 자리에 없었다. 인근에 저혈당 환자가 발생해 출동했다고 동료 대원이 귀띔해줬다. 방 대원은 30여 분쯤 뒤에 돌아왔다.

"급한 환자여서요. 저혈당 환자가 발생해서 인근 병원으로 급히 후송하고 왔습니다. 의식이 없어서 호흡과 심박수를 체크하고 수액으로 조치를 취하고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혹시 주위에 저혈당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의식이 남아 있으면 간단히 설탕이나 사탕 등으로 당분을 보충해주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지난 2003년 9월부터 응급구조 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방 대원은 '응급구조의 달인'으로 불린다. 지난해에는 전국에서 소방관으로는 유일하게 행정안전부 지방행정달인의 '병원 전(前) 응급처치 달인'으로 선정됐고, 대한민국 최고기록공무원 소방관분야에 선정되기도 했다.

사실 죽음의 문턱에서 방 대원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사람도 많다. 지난해 3월에는 동구 한 모텔에서 투숙 중에 심장이 멈춘 30대 중반의 남성을 심폐소생술과 기도삽입관 처치로 살려냈으며, 축구 경기 중 심장이 멈춘 20대 후반의 남성도 그의 도움으로 새 삶을 살고 있다. 앞서 지난 2008년에는 갈비탕을 먹다 갈비뼈가 목에 걸린 70대 노인을 기도삽입관 처치와 심폐소생술 등으로 극적으로 살려내 '하트 세이버'로 선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지금도 초심을 잃지 않고 있다. 매일 출근하면 심폐소생술 장비 등을 먼저 점검하고 '오늘도 최선을 다하자'며 자신을 채찍질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시간을 쪼개 시민들에게 알고 있는 지식을 나누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다.

응급구조에 관한 생각은 가정에서도 계속 된다. 지난 2009년 결혼한 아내도 담양에서 응급구조대원으로 일하고 있다. 주·야간 근무가 맞지 않을 때면 서로 얼굴을 마주하기 힘들 때도 많다. 하지만 방 대원은 아내와 하루를 마감하며 그날 응급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조언을 구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한다.

방 대원은 위급환자가 발생하면 항상 환자 상태와 발생지점을 정확히 묻고 출발한다고 한다. 그리고 환자에게 가면서 항상 머릿속에 환자의 현재 상황과 필요한 장비들을 머릿속으로 그려본다고 한다. 위급환자에게 최적의 구급처치를 해주기 위함이다.

"인명 구조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고민하고 준비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심장이 멈추고 4분이 지나면 뇌손상이 오고, 더 늦으면 뇌사에 이르게 됩니다. 때문에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에는 현장에 있는 누군가가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를 받고 아무리 빨리 출동을 하더라도 현장에 있는 사람들보다 느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흉부를 압박해 심폐소생술을 해주면 환자가 살아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것이다. 하는 방법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심장 윗부분을 두손으로 5~6㎝ 들어가도록 30회가량 압박하고 인공호흡은 2회 실시하면 된다. 구급요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이를 반복하면 된다고 한다. 인공호흡에 자신이 없을 경우 흉부압박만 꾸준하게 해도 된다.

"화재는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응급출동 건수는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스마트폰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누구나 응급구조 요원이 될 수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만든 '응급사항대처 방법'과 외국 앱인 'CPR-Choking' 등을 보고 따라하면 위기 상황을 처음 겪는 사람도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김경인기자 kki@

■생활 속의 달인을 찾습니다. 평범한 일을 하더라도 탁월한 일처리로 주변 사람들의 삶에 활력소 역할을 하는 실력 있는 달인들을 제보해 주시면 지면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062-222-0644.

인사

◆전남도

◇지방행정 사무관 ▲대변인실 유영춘 ▲녹색성장정책실 이상심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김기홍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이주현 ▲기획조정실 여수박람회지원관실 김동원 ▲투자정책국 기업유치과 장우환 ▲투자정책국 기업도시과 고병수 ▲투자정책국 투자개발과 이평근 ▲경제산업국 신성장동력과 황인섭 ▲행정지원국 행정과 김선호 ▲행정지원국 세무회계과 박준수 ▲행정지원국 인력관리과 장영식 ▲건설방재국 도로교통과 백광수 ▲관광문화국 관광정책과 이강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엄순섭 ▲엑스포조직위 파견 박재환 남두식 박해주 박용일 ▲특임장관실 파견 강성운 ▲관광문화국 공공디자인과 이형만 ▲기획조정실 법무통계담당관실 선양규 ▲의회사무처 유영환 ▲관광문화국 문화예술과 이형동 ▲농업기술원 이병용 ▲생물산업진흥재단 파견 김기태 ▲투자정책국 투자개발과 임춘모 ▲투자정책국 기업유치과 이광동 ▲경제산업국 경제통상과 우홍섭 ▲경제산업국 일자리창출과 이영범 ▲혁신도시건설지원단 김정섭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김학송 ▲농림식품국 산림산업과 김현춘 ▲F1대회조직위원회 김차진 ▲의회사무처 심우천 정애숙 ▲도립대학 김명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박정헌 ▲관광문화국 문화예술과 정하용 ▲해양수산국 해양생물과 김재홍 ▲보건복지부 파견 전광호 ▲여성가족부 황별이 ▲순천시 허동웅 ▲완도군 강대선

◇지방사회복지 사무관 ▲보건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임향신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과 최영옥 ▲행정지원국 인력관리과 정백화

◇지방시설 사무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백창환 ▲건설방재국 도로교통과 한병선 ▲엑스포조직위 파견 정원기 ▲의회사무처 김양수 ▲투자정책국 기업도시과 정종태 ▲영암군 박종환(이상 토목) ▲관광문화국 공공디자인과 정한민 ▲행정지원국 행복마을과 나승권(이상 건축) ▲건설방재국 토지관리과 박병춘 ▲장성군 유영수(이상 지적)

◇지방환경 사무관 ▲환경정책담당관실 김근중 ▲동부출장소 윤의석 ▲환경정책담당관실 정금규 ▲목포시 박석형 ▲국립호남권자원생물관 파견 김상호

◇지방보건 사무관 ▲보건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조상훈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과 허남호 ▲강진의료원 파견 선해병

◇지방간호 사무관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박숙경

◇지방농업 사무관 ▲농림식품국 식품유통과 곽홍섭

◇지방수의 사무관 ▲축산위생사업소 정광욱 ▲행정지원국 인력관리과 김중배

◇지방해양수산 사무관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 장병수 신영호 최승용 ▲해양수산과학원 김일용 ▲행정지원국 인력관리과 이규환 ▲해남군 정경태 ▲영광군 권승배

◇지방방송통신 사무관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실 이재연

◇지방농촌지도관 ▲농업기술원 차성충

◇지방보건연구관 ▲보건환경연구원 전두영

◇지방해양수산연구관 ▲해양수산과학원 이경식

◆무안군

◇4급 승진 ▲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전안수

◇4급 전보 ▲기획실장 김갑송 ▲민원봉사과장 박병석

◇5급 승진 ▲의회사무과 직무대리 이록수

◇5급 전보 ▲무안읍장 고용석 ▲일로읍장 김원부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하수 ▲산림환경과장 김성택 ▲재난관리과장 노춘만 ▲기업도시건설지원단 관리과장 박성열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정영진

◆구례군

◇4급 승진 ▲기획감사실장 이윤성

◇5급 승진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심정섭 ▲ 광의면장 이정수

◇5급 전보 ▲도시경제과장 김용재 ▲환경관리사업소장 정민호 ▲토지면장 민윤기 ▲민원봉사과장 박태석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권성효 ▲주민생활지원과장(사회복지과장 겸임) 서건호

◆전남대학교

▲교무처장 송경안(독일언어문학과 교수) ▲학생부처장 이준웅(산업공학과 교수)

삼형제가 나란히 육군 부사관 근무

왼쪽부터 박태환 중사·태광·태호 하사.

형과 쌍둥이 동생 등 삼형제가 육군 부사관으로 근무해 눈길을 끌고 있다.

29일 익산 육군부사관학교에서 열린 부사관 임관식에서 박태환(28) 중사와 박태호(22) 하사는 막내 동생의 임관을 축하하며 국토방위의 각오를 다졌다.

박 하사의 큰 형인 박태환 중사는 2005년에 임관해 수도방위사령부 10방공단에서 근무 중인 7년차 부사관이다. 둘째 형 박태호 하사는 박 하사보다 3개월 먼저 임관해 현재 육군부사관학교에서 초급반 교육을 받고 있다.

큰 형을 따라 경호학과에 진학한 쌍둥이 형제는 지난해 6월15일 부사관이 되기 위해 현역사병으로 동반입대해 이날 박 하사를 끝으로 모두 부사관으로 임관했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순천대 박종철 교수 '생약 한약 통섭사전' 발간

순천대 교수가 생약과 한약, 식품에 대한 모든 정보를 1권에 담은 책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펴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약자원학과 박종철(57) 교수는 "최근 생약과 한약, 식품 분야를 통섭(通涉)해 이용할 수 있는, 국내에서는 처음인 새로운 형태의 지침서인 '생약 한약 기능식품 통섭사전'을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656쪽 분량의 이 책은 생약, 한약, 식품 등 3편으로 나눠 기술됐는데 생약편의 경우 대한약전과 대한약전외한약(생약) 규격집에 수록된 529종 생약의 기원, 라틴어와 영어 등의 생약명을 담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베트남 이주여성 타오씨 익산시 계약직 공무원 선발

익산시가 도내에서는 이례적으로 베트남 출신 누엔빛 타오(31·사진)씨를 시간제 계약직(9급 상당)으로 채용했다.

익산에 사는 이주여성 중 처음으로 공무원이 된 타오씨는 외국인 안내와 상담, 통·번역, 다문화 가족 사례관리 등의 행정사무보조업무를 한다. 그는 2007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아들 1명을 두고 있다. 베트남 호찌민 외국어대학에서 한국어과를 전공한 재원으로 졸업 후 무역회사에서 근무했으며 최근 익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2년6개월간 통·번역사로 근무했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국립공원의 야생화

풍요·다산 상징…붉은 꽃잎 뒤로 말려

<72> 참나리

참나리는 1.5m 정도로 자라는 백합과의 여러해살이풀로 우리나라 전역에서 자란다. 나리류 중에서도 꽃이 크고 아름다워 '진짜 나리'란 의미로 '참나리'라고 이름 붙여졌으며, 붉은 꽃잎이 뒤로 말려 있어 '권단'이라고도 한다. 나리꽃이 많이 피는 해는 풍년이 든다고 해서인지 풍요와 다산을 상징으로 사용되는 나리꽃은 논둑이나 밭둑, 담장 밑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박성배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 자원보전과장〉

다문화가정 자녀 엄마나라말 경연대회

지난 27일 전남도청에서 '다문화가정 자녀 엄마나라말 경연대회'에서 송민요(목포 애향초 2년), 조원문(함평여중 1년)양 등 2명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전남도청 제공〉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8 FAX. 062-222-4938, 222-4918

알림

▲광주대 풍수지리학 무료 강좌=27일(토) 오후 2시~5시 광주대 호심기념 도서관 5층. 양택, 음택·수맥, 나경·입향론, 비결록명당, 장법요강 등 이론과 현상 영상 강의. 011-609-8117, 062-670-2161.

▲프르네 학습증진컨설팅 저소득층자녀 무료상담=학교부적응, 성적부진, 성적저하, 교우관계, 정서장애, 게임중독. 010-6392-7137.

▲지적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사회복지법인 수완실버빌 노인종합복지센터=65세 이상 요양등급 판정 1~2등급 인정받은자. 기초생활서비스·의료서비스·재활서비스, 여가, 사회, 주·야간보호. 062-959-2340.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부부갈등·가족갈등·체류·국적취득 등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도움이 필요 할 때,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로 인해 긴급보호가 필요 할 때 자국어로 상담 및 보호시설 연계가 가능한 기관. 경찰, 병원 보호시설 및 유관기관등이 요청하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통역을 통한 긴급지원서비스함. (광주센터 상담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062-366-1366, 367-1577, 368-1577.

모집

▲어린이재단 전남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의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기간 위탁하여 보호할 수 있는 위탁부모 모집. 061-279-1225~6.

▲외국어전문봉사단=광주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 통역 봉사활동으로 외국인과 회화가 가능한 분,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독일어 및 기타 외국어. 광주시자원봉사센터 062-613-5584.

▲심청재가 장기요양기관=장기요양 신청 및 등급 판정 수시상담. 고령, 노인성 질환(치매·중증·노환), 청소, 취사, 가사지원, 신체활동지원, 방문목욕(차량목욕), 돌봄서비스 등 대상자 및 요양보호사 모집. 야간 및 휴일 상담. 062-264-7748, 018-690-5356.

▲북구문화원 사회교육강좌 수강생=풍수지리, 생활역학, 명심보감, 관상학, 판소리, 민요교실, 고전무용, 침·뜸운용 양주호 노래교실 등. 062-527-7701.

▲한문지도자 자격 연수생=기초반 주중·주말반 각 25명, 연수 기간 3월 10일~8월 20일. 광주여대·교육대 평생교육원 011-614-4160.

▲제15기 한국문화학교 수강생=판소리·민요교실·전통고전무용·풍수지리·생활역학·사진·노래교실·명심보감·관상학·침·뜸운용·부보교육·행복한 가정만들기 등 11개 과목을 개설. 광주시 북구 중흥동 북구평생학습문화센터 4층 062-527-7701.

▲(사)대한치어리딩협회 광주·전남 광역지부 사무처 사원=사무처 운영팀 업무, 4대보험 가입 및 주 5일 근무, 회계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컴퓨터 활용능력 상급 능력자 우대. 062-367-5577, 0855.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대상자=언어발달 평가(표준화된 언어평가 도구 사용), 언어발달 교육(개별·모둠 수업 : 주1~2회, 회당 40분). 초등학생 이하 다문화 가정의 자녀. 광주 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2-363-2963. 070-8768-9461.

▲동구정신보건센터 주간지지 서비스(주 5일 운영) 회원=정신건강 상담서비스 무료제공 및 만성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관리(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062-233-0468.

▲(사)인재육성아카데미 4기 교육생=대학생 취업역량 강화교육, 수료생 기업취업률 82%, 기업실무, 구직실제훈련, 예비신입사원훈련, 서울오리엔티어링, 배낭구직활동, 품성교육 등 광주전남소재대학교 2~4학년. 062-224-7733.

▲비단향꽃무=천연수제샴푸, 탈모, 비듬, 두피가려움증, 아토피, 여드름, 건성피부, 천연비누 제조 수강생 수시 모집 062-682-7384.

부음

▲김덕님씨 별세 민영진·영남·영균·연순·여님·영님·종님씨 모친상=발인 1일(월)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정기영씨 별세 주동·주해·주방·주흥·주승·주열·인경씨 부친상=발인 1일(월) 무등장례식장 203호 062-515-4488.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故임금택 님 (남/77세)
子/子婦 : 임채홍 / 신경희, 정철 / 송민애
女/壻 : 임명숙 / 이진형, 수연 / 이양열,명화 /
• 호실201호 • 발인:8월 01일
• 장지:영락공원 • 연락처:227-4381

故정길엽 님 (여/81세)
子/子婦 : 최선호 / 정명숙, 태호 / 임향란 성호 / 정경미
女/壻 : 최순심 / 이화섭, 정희 / 박성근 경희 / 김준식
• 호실401호 • 발인:8월 01일
• 장지:승주낙안선영 • 연락처:227-4383

故추원호 님(남/85세)
子/子婦 : 추복현 / 임민숙, 복민 / 최순례
女/壻 : 추현순 / 이민용
• 호실101호 • 발인:8월 01일
• 장지:영락공원 • 연락처:227-4385

마음까지 편안한 금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

謹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故 전홍임 님(여/81세)
子/子婦 : 김보성(현대건설)/황경님
女/壻 : 김옥란, 진아/윤병림, 옥연/심문용
• 발인:8월 2일 09시00분
• 장지:영락공원 • 연락처:250-4405

故 기형섭 님(남/89세)
子/子婦 : 기재춘/조순옥, 재인(노동부)/김채림, 재휘(북구청)/정은숙
女/壻 : 기경옥/장진
• 발인:8월 1일 09시00분
• 장지:영락공원 • 연락처:250-4409

故 박동표 님(남/51세)
未亡人 : 송옥죽
女 : 박유나, 혜민
• 발인:8월 1일 09시30분
• 장지:영락공원 • 연락처:250-4412

그린장례식장 24시간대기 (062)250-4455